

안동김씨 대종회 고문·회장단 연석회의 개최



2013년 9월 11일(수)
11:00~13:00 안동김씨대
종회 고문, 회장단회의를
대종회 사무실에서 개최
하였다.

참석하신 분은 총 27명
으로 종회 업무보고를 듣고
상정된 안건을 보
의하여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신입 부회장에 위촉된
원중(都), 태선(提), 선회
(接)님의 위촉증 전달이
있었다.

업무보고는 사무총장 사업수리 및 삽임 사무총장임명 보고와 각 소파별
대종보수단 진행 사항 보고를 듣고 120호 종회보발간 배포 내용 설명을
들었으며 송의전 후계행사, 충무공 김시민 장군 추향제 참석 요청 등 공
지사항을 듣고 상정된 안건의 설명과 토의 절차로 회의를 종료하였다.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1. 대동보 편찬 간행에 관한 건
2. 충렬공 김병평 탄신 800주년 기념행사 백서 발간 및 기념비 건립에
관한 건
3. 제재회 대전 호 문희뿌리축제 참가 및 행사에 관한 건
4. 안동김씨대종회 회칙개정안의 심의와 정기총회 상정에 관한 건

결정내용

1. 각 소파별로 진행 중인 수단업무에 더욱 노력하여 최대한 빨리 수
단업무를 끝낼 수 있기를 요청함
2. 상정안건 원인대로 실행할 것을 결정함
3. 행사에 참석하기로 함
4. 상정안 원인대로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참석자명

顧問: 深眞, 在殷, 祥天, 荘萬, 觀默, 泰圃, 弘輔, 宏大, 評浩
會長職: 真貞, 永勳, 在英, 櫻璽, 在化, 承倉, 梅園, 在正, 泰植, 泰玉,
泰文, 在光代, 深眞(代), 春教, 元重, 泰瑄, 琴正

신임 사무총장에 상근(相根) 종친

대종회는 회칙 제25조에 의한 사무총장
사업 승인 및 후임 사무총장 임명을 2013
년 9월 1일 자로 단행하였습니다.

퇴임 사무총장 태운(泰雲)님은 그 직을
맡은 지 5년 7개월에 풍란 분사 징진으로
업무처리를 성실히 하고 본회 각종 대소행
사를 잘 처리함으로 종회발전에 공로가 많
았습니다.

이번 간행하는 대종보 관한 업무에 입하
여 열심히 직무를 수행했던 중 사업을 청
하여 허락하여 팀을 애색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며 사업 후에도 본회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이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사무총장 상근(相根)님은 제학공
(회 이답) 선조님의 19대손으로 현재 병원

의료감비 수입관련업무를 운영하던 중 사무
총장 주원을 받았습니다. 직무적합 실사
결과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명을 결정
하였습니다.

우리 대종회의 최대 사업인 대종보 편찬
간행업무가 진행 중 사무총장 교체를 단행
하였지만 업무차질은 없을 것이다. 대동보
편찬 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훌륭한 총보를 만들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종회원 여러분께서는 한사람도 누락
없이 수단에 참여하여 훌륭한 총보단행에
다 같이 노력하시다. 종회원 여러분의 턱
내 편안과 견승을 기원합니다.

「안동김씨 대종회」

신임
사무총장
인사말

존경하는 종회원님들에게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입니다.

종회원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종회(大宗會) 회장님으로부터 사무총장직(事務總長職)에 임명된 총현(總賢) 23세(代孫) 상근(相根)입니다.

불肖 미개한 저에게 중임(重任)을 맡겨
주신에 감사를 올리며, 미리이나마 한신봉
사(獻慶奉事)의 징진으로 책임을 다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

진임(前任) 태운(泰雲) 사무총장님께서 6
년여간 사무행정을 맡아 수령하시면서
훌륭히 잘 해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렬공(忠烈公) 탄신(誕辰) 800주년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미무리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문중 대사(大事)인 대종보(大種譜)
발간 관한 업무를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사직(辭職)하심을
예상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임(前任) 태운(泰雲) 사무총장님께서 6
년여간 사무행정을 맡아 수령하시면서
훌륭히 잘 해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렬공(忠烈公) 탄신(誕辰) 800주년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미무리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문중 대사(大事)인 대종보(大種譜)
발간 관한 업무를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사직(辭職)하심을
예상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임(前任) 태운(泰雲) 사무총장님께서 6
년여간 사무행정을 맡아 수령하시면서
훌륭히 잘 해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렬공(忠烈公) 탄신(誕辰) 800주년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미무리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문중 대사(大事)인 대종보(大種譜)
발간 관한 업무를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사직(辭職)하심을
예상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종회원 여러분에게

제가 종회업무(宗會業務)를 수행하면서
잘못이 있으면 즉시 지적하고 꾸짖어 주시
어 즐거움이 있어들이 주시고, 잘하는 일이 있
으면 칭찬도 해 주셔서 용기를 주십시오.
향상 분야의 마음으로 일하며 종친 간 화
단(和)과 협동(協同)의 차원에서 종회의 모든
업무를 처리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선조
(先祖)님과 문중(門中) 종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빼고 인사 끌려와 마땅한
도리인ade 지면으로 인사 울림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

2013년 9월 1일

安東金氏 大宗會 事務總長 忠烈公23代孫 横根 植上

대동보수권 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대동보수권 편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2013. 9. 27(금) 오후 17:00 수권편찬위원회 회의가
대종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대동보수권 편찬위원회 증원 결정에 따른 신임편찬위
원 융기(潤基, 융주(允周), 재광(載光)님을 비롯하여 편찬위
원 5명과 대종회장님,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
의를 시작하여 수권 편찬부문 진행을 위한 규정을 정하고
규정에 의한 임원을 선출하였다.

수권편찬위원회 회장은 융환(允煥), 간사에는 융항(潤衡)
님을 선출하고 수권편찬부문의 차질없는 계획과
정확한 수권편찬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참석자: 병희 대종회장, 싱근사무총장, 영원, 태영,
태선, 융항, 융주, 융주, 성화(大濟), 재광 無顯

개성운공파 2013년 시향 성료!!

개성운공파 2013년 시향이 10월 13일(일요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을 지월리 293-1에서 개최되었다.

봉화 안동김씨 대종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종친들
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서운관정공파 제준회장을 비
롯해 문은공파 재호 총한 등 30여 종친들께서도 참석
더워 빛나는 행사가 됐다.

이날 시향의 초현관은 충렬공 27대손인 이경 개성운
공파 회장이 맡았으며, 이현관은 재준 서운관정공파 회
장이 종현관은 문은공파 재호종친이 맡았다.

본래 개성운공파 종친회에서는 봉화 대종회장께 시향
초현관을 부탁드렸으나 대종회장께서 “지난해에도 현관
을 했으니 올해는 다른 참석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라며 한사코 양보해 서운관정공파와 문은공파에서
현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개성운공파 최고령인 94세의 참석고분은 예년과 다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노이장을 과시, 눈길을 끌었고,
두루 고령인 91세 상명 고문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행사에 참석한 종친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개성운공파 수남 총한은 “묘지에 근접한 자신의
아여어를 개성운공파 종친회에 회사하겠다”라고 밝
혀 모든 종친들의 박수를 받았다.

수남 총한은 그동안 시향 때마다 주차장이 없어 불편
이 많았지만 60여 명의 힘으로 회사장을 맡았던
내년부터는 더욱더 근사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운공파 이경 회장 제공』

제5회 대전 효 문화뿌리축제



제5회 대전 효 문화뿌리축제가 2013년 10월 19일(일) 대전 증구 흥선동 뿌리공원에서 개막식 행사를 시작으로 3일간의 축제가 시작 되었다.

효 문화를 테마로 거행되는 이번 행사는 문중 행렬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관심과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종회는 회장님을 비롯하여 일원, 회원들 60여 명이 참석하여 선조님의 위엄을 알리고 안동김씨의 양반가로서의 위상을 전하였다.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개막식 문중 행렬은 200여 섬씨 문중이 참여하여 자기 문중을 알리기 위하여 예복 등을 착용하고 문중 기를 앞세워 대성황을 이루며 열띤 경쟁이 이루어졌다. 우리 대종회에서는 안동김씨 문중 기를 앞세우고 [高麗 都昌公府志] 金方慶의 증시조님 현수막 깃발을 만들어 높이 들고 이번 축제를 경축하는 이동식 현수막을 2명이 들고 이동하며 30cmX 20cm의 원색 바탕 안동김씨 로고가 새겨진 깃발 100개를 제작

하여 하나씩 들고 힘차게 흔들면서 입장장소에 내빈들은 물론 참석 분들과 관람객들로부터 박수가 대단히였다. 참석하신 60여 명이 70여 만의 우리 종인을 대표하여 안동김씨의 위상을 힘껏 자랑하였습니다 알리며 출몰한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 긍지를 갖고 이번 대종회 발간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수단 참여에 동참할 것을 독자에게 간곡히 권해 본다.

점심식사 후 뿌리공원 내 안동김씨 조형물 앞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조형물 건립사 및 문중사를 논하여 등록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 족보 바탕판에 들러 족보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전시되어있는 우리 문중 최초의 족보 경진보와 문중소개를 살펴보았다.

하루빨리 대종회를 완간하여 이곳 족보박관에 진입되어 반짝이는 안동김씨 대종보를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충무공 김시민장군 탄신459주년 기념행사



2013년 9월 23일(월요일) 10:00 친환경 기념관 밖은 누리관에 충무공 탄신459주년 기념행사가 [사]충무공김시민장군사업회 주최로 거행되었다. 진행 순서에 따라 식전행사로 영상을 상영이 끝난 후, 험시 및 일대기 낭독, 활동경과 보고, 유관자 표창, 기념사, 축사, 격려사와 김일환 교수의 강연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안동김씨 대종회에서는 회장 김봉희님의 축사를 행사를 축하하였으며 많은 참석자분들의 축하 속에 충무공 김시민 장군 459주년 탄신을 축하하였다. 다음은 대종회장 김봉희님의 축사 내용을 정재합니다.

▶ 祝辭



감사합니다.

먼저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 이종원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10만 천안시민 모든 분에게 70만 안동김씨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길(안동김씨)이 해야 할 큰 행사를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와 천안시에서 맡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충무공 김시민 장군 탄신 459주

년을 맞이하여 길은 존경과 추모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식하신 여러분과 같이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기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곳 출걸의 고장 천안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성장기 거치면서 인격을 쌓고 무예를 연마하였다던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이곳 축립기념관에서 멀지 않은 벙천면 가진리 백전은 우리 안동김씨 백전문종의 세계지(世紀地)로 김시민 장군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생가(生家)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3대회 중의 하나인 진주대첩의 명장이신 김시민 장군께서는 이곳 사사계(射箭場)에서 9세 때의 어린 나이에 활을 쏘아 이루기를 잡았다는 전설이 전해오며 김시민 장군의 상우정신과 응행관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사업회 전공을 세우신 것입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께서는 전주성 대첩에서 3800여 명의 군사로 30여 명의 왜병을 맞아 2만여 명을 사살하는 큰 전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오직 우국충정의 일념과 타월한 전략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순국하신 투철한 사명감과 불굴의 신념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를 본받고 귀감으로 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충무공 김시민 장군 459주년 탄신일을 맞아 송고한 국난극복의 정신을 외새기며 지혜로운 삶에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행사준비를 해주신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 관계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의전 추계대제 봉행



참예자: 상근 사무총장, 제학공파 - 윤항, 문철, 봉희, 규철
인력사공파 - 성회, 진희, 현수 외 1명

승의전 추계대제는 10월 6일 [일] 연현군 미산면 아미리 7번지 승의전에서 봉행 되었다. 고려4왕의 제향이 초현관 부군수와 한작과 아현, 종현이 집례의 풍기에 따라 엄숙히 진행되었으며 일부아인[고려종묘제례악]의 연주속에서 16공신의 후손 분현관의 국광4백제제례와 소속 선조님께 현주의 예를 올리고 많은 참사자의 엄숙한 참사 속에서 약 3시간의 제례의식으로 승의전 추계대제를 풍요하였다.

우리 안동김씨 대종회에서는 맹이 참석하여 추모하였으며 분현관에 사무총장이 참석 하였다. 제례가 끝나고 승의전 입구에 마련된 간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우리 일행은 연현군 장남면 고로포리 산 18-2에 있는 경순왕릉을 찾아 함께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은암공 선조님의 영단에 참배하였다.

詩

죽계사 [竹溪祠]

죽계사
竹溪祠



육나불王女廟 와 남쪽 끝자락에
기와지붕 우뚝 서 있는 절 한 채

너무도 깨끗한 밟은 공기들
한숨 들이쉰 가슴 속에
선명한 현관이 돌보인다.

죽계사[竹溪祠]

넓은 미당의 백나무 반짝거리
미루 및 디딤을 내려서면
옛 모습 기와 담금이 어려히 이름을 감싸 안아 주고
뛰들어 바라본 하늘 아래
단란한 석기대 행렬이 고종스런 방문살을 내려다 본다.

비로 옆 송석묘원[松石廟園]에서 물이오는
항긋한 산길[山蹊] 내용

죽계사[竹溪祠]

조용히 웃깃을 고치며
죽계[竹溪] 산조[先祖]의 묘소를 향해
공수[拱手]의 예[禮]를 물린다.

人曰 / 金相根

회장 동정

- 9/04 고장 익령공부조묘 홍사 침식
- 9/21 대종회고문 재온님 부인상 조문
- 9/23 충무공김시민 탄신469주년기념행사[독립기념관] 참석
- 9/26 대성씨 문종연합회 회의 참석
- 9/27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축하행사 전달
- 10/12 안동시민[체육대회] 침식
- 10/13 개성윤공파 시향 참례[광주시 초월읍 지필리 선영]
- 10/19 세종시 연기대첩제 제향 침식

대종회보 원고제출

- 대종회보는 종친 여러분께서 제출하시는 원고를 정리하여 발간합니다.
회보 원고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원고제출은 매 분기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나니 참고 바랍니다.
 2. 원고를 보내실 때에는 사진을 포함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원고 내용은 종친회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翼元公[諱士衡] 不祧廟 享祀 奉行
2013년 9월 4일 [음7.29] 고장군 공음읍 험암리
不祧廟에서 150여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민사[忠愍祠] 충무공 김시민 장군 추모 제향 봉행



2013년 10월 8일[화] 충무공 김시민 장군
추모 제향이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충민사
에서 괴산군 부군수와 관계자, 유림대표,

삼일착념(三日着念)

지금 이 시간이 오늘이고 지난간 오늘은 어제이며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이 과거이다.

이 순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돌아오지 아니한 내일을 맞이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삶일을 학 길하게 마음으로써 삶이라는 과정을 천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삶일을 여문을 지니고 주어진 시간을 끊없는 일에 날마다에서는 아니 될 것이다. 금급없이 새것들이 생겨난다. 이전에서 나서 이곳에서 뉘르니 이 삶일에 마음을 쓰는다. 어제가 까마득한 옛날 같고 전 년의 세월도 눈깜짝할 사이다. 시간은 상대적이니 깊이를 찾질 수 없다.

어제를 기억하고 잘 살았는가? 자가 문답을 해보면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 어떤 상황에 대하여 후회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도 없다. 왜냐하면, 과거는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과거는 이미 지난간 일, 끝을 알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것이란 비로소 마음의 광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제의 지난간 일 오늘에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의롭고 오늘을 맞이함에 부족한 점과 움은 것들에 보충하고 연속적으로 할 일을 찾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잘살고 있는가? 어제는 지나가고 다시 오늘을 맞이하여 바로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보이는 것에 익숙해진 오늘조차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달라진다면 지금 웃는 얼굴을 바탕으로 조율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는 풀고 욕망은 풀어야 한다.

사람은 감정의 물동이기에 풋을 두는 회비에 의해 살기 위하여 사람들은 작은 친한 한 미터에 그 날은 종일 기본이 좋고 미처 풀거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살래게 되고 마음이 뜰때 되며 또한 친한 사람까지도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친한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에 아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항상 틈에 짐을 지고 살기 마련이며 등에 짐이 없다면 세상살이를 바로 살지 못할 것이며 짐 때문에 조심하고 바쁘고 성실하게 살기 마련이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에 대한 귀한 선물이 되는 셈이다.

우리의 삶은 항상 반복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

좋은 일을 반복하면 좋은 삶을 염원할 것이다며 나쁜 일들을 반복하면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 시각부터이다. 자신들은 그토록 비싸고 소망하는 미래는 자신의 세계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의해 결정되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 리기 위해 바로 지금 이 시간 현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만 하는 것이다.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사람들은 다만 이 삶일을 마음에 두고 때때로 춤을 뛴다. 옛날 일을 잊지 못해 마음을 조이거나 남날의 일들을 걱정하는느낌과 오늘을 아끼한다.

오늘 없는 어제는 후회요, 오늘 없는 내일은 근심뿐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 삶일의 관리를 잘해야 하며 우리는 오늘이 있음을 잊지 못하게 되면서 세상 일이 어긋나게 된다. 어제는 이미 지난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할 일이 있다면 다만 오늘이 있을 뿐이다. 지난간 것들은 되돌아오지 않거나 오지 않거나 잊을 것은 비록 남아 있었더라도 그 날에는 없다. 그 와 같은 속에서 큰 행복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함으로 막망을 풀일수록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 살고 가는 우리 인생 내일을 암울하게 하는 모든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다는 마음을 꺼내고 뜨겁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있는 생활 속에서 내일을 맞이하기에 힘들지 않을까 싶다.

잠 이상하다. 어제도 내일도 없다. 오직 오늘이 있을 뿐이다. 지금 시간을 잊어버린 채 어제 살고

자금을 버려두고 내일을 꿈꾸는 삶은 나날이 꿈에 먹여지고 마음의 밭은 갑수로 황폐해진다. 오늘은 없음은 어제가 슬퍼지고 내일은 텄 빈다. 삶일까지 신경을 쓸 것 없이 오늘이 문제이다.

사람들은 몸의 별만 대단하게 여겨 지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다. 하지만 오늘을 놓치면 삶일을 외면하는 사이에 깊어진 마음의 병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원망하거나 회망에 잠겨 둘이킬 수 없는 걸을 간다. 우리의 마음과세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따라 이어지기도, 빠져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잊지 말고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도 남에게 미소를 주고받으면 돈도 들지 않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미소이다.

미소에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총족시키고, 주는 사람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다. 미소는 가정에서 헬복을 끓 피우고 직장에서 회의를 배울 때 하여 친구 사이에서 무정의 징표를 드는데, 그래서 미소는 세상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자연의 묘약이다. 미소는 대개없이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보석이다. 그러면서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면서 삶이 활기다고 어렵다. 두렵다라고 피해갈 수 없다. 유행은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그런대로 살아갈 수 밖에는 없다. 그 와 같은 속에서 큰 행복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함으로 막망을 풀일수록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 살고 가는 우리 인생 내일을 암울하게 하는 모든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다는 마음을 꺼내고 뜨겁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있는 생활 속에서 내일을 맞이하기에 힘들지 않을까 싶다.

「문화공화 재호」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상

관교[官教] 대종회 이사[전서공파]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함과 문분 품사에도 참여하여 현재 대종회이사 팔서공증회 총무이사 전서공파 회장·정남 종친회장을 맡아 품사하고 있다.

이번 표창 수상을 축하합니다.

대종회이사[이사]와 팔서공증회 총무이사[이사]신 관교증진센터에서 2013년 6월 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장을 수상하였다.

관교증진센터는 건설시공 기술사로 건설분야에 약 20여년간의 고을을 걸어 오면서 건설기술발전에 큰 공을 세우고 70여년의 대소 공사를 시공 완벽하게 완공하였습니다. 특히 안동김씨 이원공과 종종발달 공사도 준공하였으며 건설분야의 제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보타리크립 활동과 불무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활동에도 기여함과 문분 품사에도 참여하여 현재 대종회이사 팔서공증회 총무이사 전서공파 회장·정남 종친회장을 맡아 품사하고 있다.

「기사제공 팔서공증회 종목회장」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 수리 / 한옥 / 사찰 / 계실

보수단 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 진 식

(총괄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 미술협회 회원

한국 장승전통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명봉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 ddun Dol@hanmail.net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 08. 01 ~ 10. 15)

○ 팽성회비

- 20만원: (眞)석한(서울), (都)봉식(서울), (典)강목(청도)

○ 한조금

- 10만원: (眞)태경(청주), (郡)재령(서울), (接)낙희(오창)

- 5만원: (眞)용희(인천), (文)재희(서울), (接)재관(청주), 재복(전진), (都)향희(대구)

○ 통상회비

- 5만원: (文)승희(대구), (都)재진(인천), (接)규영(인천), (大)태균(서울)
- 3만원: (都)혜수(인동), (密)덕탁(인양), (都)봉운(고양), (提)윤희(평형)
- 2만원: (眞)수덕(정동), 은한(논산), 대석(구성), (提)태서(서울), (副)수일(군산), 태령(청원), (典)상식(청원), (大)보성(보성), 태경(광주), (文)덕(울산), (接)재균(대전), 청희(수원), (正)태덕(안산)
- 1만원: (文)승만(고양시), (接)경희(대전), 무영(부평)

계: 55만 원

계: 61만 원